

드롭다운 목록으로 엉뚱한 데이터 입력을 원천 차단하자

드롭다운 목록은 사용자 입력을 제한해서 데이터 디자이너의 작업 속도를 높이는 훌륭한 도구다.

드롭다운 목록의 데이터 확인 규칙을 사용하면 셀에 입력할 수 있는 항목으로 채워진 드롭다운 목록을 만들 수 있다. 항목 목록을 수작업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, 데이터 범위를 참조할 수도 있다.

이름이 지정된 범위를 활용해 변수에 이름을 붙이자

특정 셀 범위에 사용자 정의 참조 이름을 붙일 수 있다. **이름이 지정된 범위**는 시트를 설정하는 데 필수는 아니지만, 저장된 데이터 또는 값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. 이름은 셀 하나 범위에 지정할 수도 있고, 여러 셀이나 여러 행, 또는 둘을 복합해 지정할 수도 있다. 시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크기가 이름이 지정된 범위가 될 수 있다.

이름이 지정된 범위가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, 기존 데이터에 대한 참조를 단순화하는데 도움이 된다. 이 장의 서두에 나오는 몬스터 리스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. 데이터 확인을 사용해 선택 가능한 모든 몬스터로 채워진 드롭다운 목록을 만들고 싶다면, 그림 5.50처럼 **데이터 확인 > + 규칙 추가**를 클릭하고 **기준을 드롭다운(범위)**로 선택한 뒤 데이터 범위를 입력하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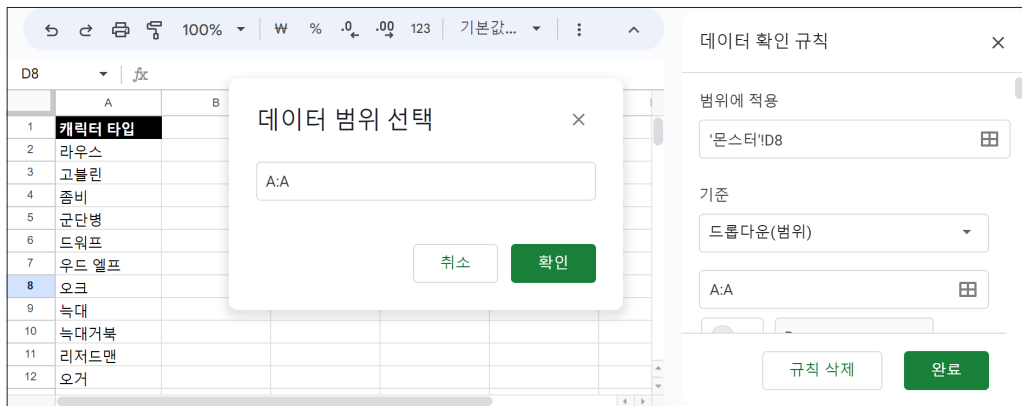


그림 5.50 **드롭다운(범위) 입력** ※ 그림 5.50 수정됨

그림 5.50처럼 선택하면 D8 셀에 드롭다운 목록이 표시된다. 그러나 **데이터 확인 규칙 사이드바**를 검토할 때는 참조하는 정보(예: 그림 5.50의 열 A:A)를 어느 정도 기억해야 한다. 정보가 같은 페이지에 있고 완전히 보여서 명확할 때도 있지만, 데이터가 다른 시트에 있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는 A:A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약간 파고들어야 할 수도 있다. 모든 시트에 동일하게 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에 무엇이 저장돼 있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단서

가 없다. 이런 종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, 셀 범위에 사람이 더 잘 인식하고 정보를 파악하기 쉬운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(예: 이 경우 몬스터이름). 그러면 한참 나중에 그 이름을 보더라도 어떤 데이터가 참조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

이름이 지정된 범위를 정의하려면 먼저 이름이 지정된 범위에 넣을 셀을 선택한다. 그런 다음 데이터 탭, 이름이 지정된 범위로 이동하면 그림 5.51과 같은 사이드바가 표시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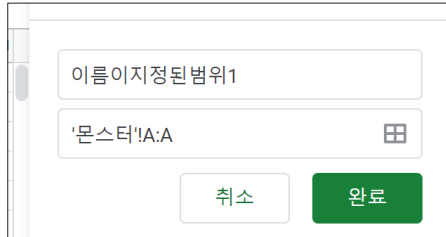


그림 5.51 이름이 지정된 범위 사이드바

포함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해놓았기 때문에, 스프레드시트가 자동으로 그 범위를 선택 범위 칸에 채워 넣는다. 이 인터페이스에서 범위를 수정할 수도, **마우스 선택** (田) **옵션**을 선택해 완전히 다른 범위를 고를 수도 있다. 다른 시트에 접근하기 위한 규칙이 이 인터페이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 선택 범위 칸 위에는 그 범위의 실제 이름이 있다. 구글 시트는 기본적으로 자리채움(placeholder) 이름을 적용한다. **이름이 지정된 범위**의 요점은 선택된 영역을 더 직관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, 이 자리채움 이름을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. 현재 예에서는 몬스터이름 같은 명칭이 더 나을 것이다(그림 5.52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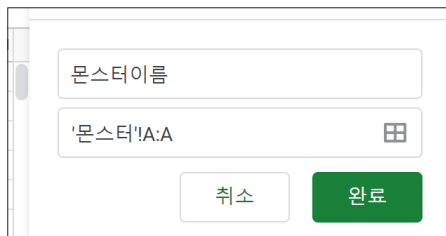


그림 5.52 이름이 변경된 범위

참고

범위 이름과 해당하는 범위 자체를 정의한 뒤에는, [완료]를 클릭해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. 이후에는 [데이터] 메뉴에서 동일한 이름이 지정된 범위 인터페이스에 접근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범위의 이름을 바꾸거나 재정의할 수 있다.

범위 이름을 지정한 뒤에는 그 범위의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모든 곳에서 범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**드롭다운 목록의 예**에서 몬스터!A:A를 참조하는 대신, 몬스터 이름을 리스트로 만들고 **이름이 지정된 범위**인 몬스터이름만 참조하면 이 기능을 동일하게 쓸 수 있다(그림 5.53).

※ 그림 5.53 수정됨

그림 5.53 이름이 지정된 범위로 드롭다운 목록 만들기

이름이 지정된 범위는 수식이나 함수의 변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. 이름이 지정된 범위는 복잡하거나 긴 숫자를 저장할 때 특히 강력하다. 예컨대 게임에서 1,480kg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가 있다면 그 큰 수를 기억하거나 계산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. 더 나아가 테스트를 거치면서 적재량을 변경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? 1,480을 외우고 숫자가 필요한 모든 곳에 수작업으로 입력했다면, 수많은 수식과 함수에서 그 숫자를 찾아내야 하는 과제가 생길 것이다. 그런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그림 5.54처럼 참조 시트에 1,480을 입력한 셀을 만들고 이름을 지정하는 편이 훨씬 쉽다.

그림 5.54 이름이 지정된 범위 셀

이름을 지정한 뒤에는 숫자 대신 적재량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. 숫자보다 기억하기 쉬우며 수정하기는 더욱 수월하다. 수식에서는 그림 5.55처럼 보일 것이다.